‘층간소음·애완견’ 골 깊어지는 이웃 갈등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3년간 816건 접수

시 “다양한 소통방 운영 통해 분쟁예방 최선”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애완견, 주차시비 등의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광주에서만도 사소한 분쟁에 따른 이웃간 갈등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지난 3년간 800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애완견·주차시비 등 816건의 이웃간 분쟁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2건, 2017년 214건, 2018년 490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사유별 건수는 층간소음 246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75건, 층간흡연 55건, 주차문제 42건, 기타사유 305건으로 층간소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기타사유는 아파트관리소홀, 건축·시설물 관련, 악취 등이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문제로 50대 이웃 여성을 집단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어머니와 아들을 입건했다.

이들 모자는 A씨(52·여)가 아파트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자 이를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4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망치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로 B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북구 한 아파트 12층에서 망치로 현관 외벽을 수십 차례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으로 들어가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아랫집에 사는 B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찾아가 이같을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광주시는 지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분쟁이 접수되면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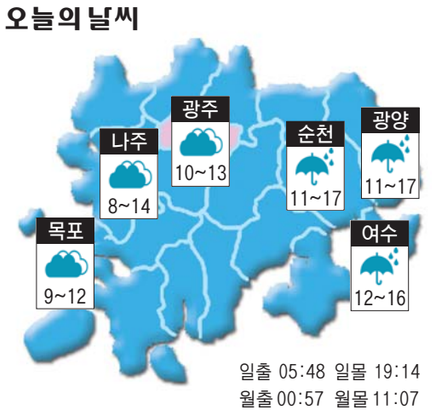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 3년간 816건 중 692건을 해결하는 등 85%가 넘는 화해 성사율을 달성했으며, 남은 민원에 대해서도 화해를 권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주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라 아파트형 소통방을 구성해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광주시는 이 밖에도 시니어 소통방, 학교와 마을을 잇는 소통방 등을 통해 분쟁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쟁해결센터는 광주시, 지방법원, 자치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과 협업하는 하나의 거버넌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협의체다”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5:48 일몰 19:14
월출 00:57 월몰 11:07

장 성	8~13	흑산도	9~12		
담 양	8~14	구 례	9~15		
화 순	8~14	곡 성	9~14		
영 광	8~12	완 도	10~14		
함 평	9~14	강 진	9~13		
무 안	9~13	장 흥	9~15		
영 암	8~13	해 남	8~12		
진 도	9~13	고 흥	10~16		
신 안	10~13	보 성	7~15		

목포	만조 06:56 18:45	여수	만조 01:24 13:19	
	간조 12:23 --:--		간조 07:50 19:1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나이롱 환자·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경찰, 보험사기 병원장 등 164명 입건

나이롱 환자를 모집하고 알선한 브로커와 한의사·허위환자 등 16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5일 허위 입원을 알선해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혐의(보험범죄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55)를 구속했다.

또 병증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를 받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장 13명과 다른 브로커 1명, 허위 입원환자 14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브로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환자 63명을 모 한방병원에 소개해주고 입원비 10%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다. 뿐아니라 A씨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이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병원장들은 환자가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환자 149명은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나라 기자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김태규 기자

전남도청서 통일트랙터 출정식 열려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 거쳐 내일 파주 임진각으로

4·27판문점 선언을 기념해 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트랙터’ 12대가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

통일트랙터품앗이 우리농업살리기 광주전남운동본부는 25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통일 트랙터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전남운동본부는 출정선언문을 통해 “농민들이 중심이 돼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끼리 만들어가는 통일을 위해 트랙터를 출정한다”며 “민족 구성원이 교류하다 보면 얼었던 물이 풀리듯 자주적인 통일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운동본부는 이어 “통일트랙터가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시대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전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서는 분단선을 넘어가자는 의미로 성조기가 붙은 철책을 트랙터 버킷에 올려두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통일 트랙터는 모두 12대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모금한 4억 8,000여만원으로 마련했다.

출정식을 마친 이들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통일 트랙터 운동본부와 합류해 광화문 결의대회을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전국 27대의 통일 트랙터는 오는 27일 경기 파주 통일대교로 옮겨져 방북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방북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트랙터는 승인이 날 때까지 통일대교에 둘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광주경찰, 비위 의혹에 수사팀 구성

수사정보 유출사건 이례적 조사

수사정보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 의혹’을 받는 간부급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25일 팀장급 간부인 A경감이 관내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실 관계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수사팀은 총경급 간부 포함 총 10여명으로 구성됐고, 현재 A경감과 부동산 관계자간의 금품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이중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내부 경찰관의 정보유출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민 기자

친딸 흉기 위협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친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돈을 달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알콜중독자 아버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5일 친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4일 친딸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가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달라’며 딸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에도 가게에 찾아가 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가족을 위협한 전력이 다수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